

벤처 지원정책 후속대책,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대기업 - 중소기업·벤처 동반성장의 핵심은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 발전

정부는 최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후속대책으로 부품·소재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전략은 중핵기업 300개 육성, 대기업 부품·소재 분야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대기업 - 중소기업·벤처간의 협업과, 원천기술의 보호·육성을 담고있어 벤처 활성화 대책의 후속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우리 경제에서 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38%, 고용의 46.3%, 수출입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국내 제조업의 중추다. 완제품을 기준으로 따져도 생산원가와 부가가치의 60% 이상이 부품·소재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거대 다국적기업의 관련 핵심부품·소재 진입장벽 강화와 공급독점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핵심 부품·소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해도 국내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부품·소재산업의 보호와 육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 부품 · 소재 산업 발전 전략 ’ 의 주요 내용

중핵기업 300개 육성 산자부의 이번 발전전략 목표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300개의 중핵기업 육성에 있으며 중핵기업은 모듈화 방식의 생산이 가능하고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을 넘어서는 규모를 갖춘 기업을 의미한다.

중핵기업은 구체적으로 매출 2000억원 이상, 수출 1억달러 이상을 달성해야하고, 특정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지 않아야 한다. 중핵기업의 기준은 원천기술 개발이 가능하고 대기업과의 종속적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매출·수출 비중 등을 정해 결정하며 집중 투자를 통해 중핵기업을 육성, 다른 부품·소재 기업들을 다시 견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특성에 따른 차별화 육성정책 마련 2010년 세계시장을 선도할 100개 품목 확보를 목표로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집중지원한다. 중핵 소재기업 등은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10대 전략 부품·소재 개발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또 적기 대응이 필요한 시장수요형 부품·소재는 한·일 FTA에 따른 수입증가 예상품목, 중국 수출 확대 품목 중 매년 50개 품목을 선정해 5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원천기술이 부족한 경우 기술을 도입하고, 시장 규모가 협소한 제품은 투자 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밖에 대기업의 부품·소재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현행 대기업이 순자산의 25% 정도를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으나 부품·소재 분야에 한해서는 50%까지 출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양한 지원책 마련 정부는 부품·소재 투자를 위해 사업화·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사업화·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업종의 '수급 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기술력제고 및 투자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수급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해 제조 장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양방향 구매 정보 포털도 구축키로 했다. 또 현행 9.2%인 국방 기술 개발자금의 부품·소재 비중을 1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가격 인하, 제조 노하우 공개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 제재키로 했다.

발 전 전 략 의 평 가 및 기 대 효 과

이번 발전전략은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정책적, 동태적 분석과 수차례에 걸친 민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것으로 부품·소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평가는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와 국방 기술 개발자금의 일정비율을 부품·소재산업에 책정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업종에 대해 수급 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에서 확인된다. 정부의 이번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의 수출비중은 2004년 43.8%에서 2010년 50%로 늘어나고 핵심 부품·부품소재를 자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여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